

국내 수생습지식물 야생종 생물다양성 확보

(국립수목원 위탁연구, 2017)

배 찬 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백령도, 울릉도, 제주도, 진도 등을 포함하여 수생습지식물을 탐색하여 59분류군, 2,512개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식물은 27분류군의 희귀식물과 2분류군의 특산식물을 포함한다. 희귀식물로는 CR등급으로 독미나리, 부채붓꽃, 북통발, 서울개발나물, 양뿔사초, 진퍼리잔대, 참물부추, EN등급으로 계목, 물고사리, 물여뀌, 솜아마존, 전주물꼬리풀, 조름나물, 좁어리연꽃, VU등급으로 순채, 홍도까치수염, 흑삼릉, LC등급으로 꽃창포, 낙지다리, 모새달, 자라풀, 창포, DD등급으로 민구와말, 벼풀, 제비붓꽃, 진퍼리용담, 햇사초가 포함되며 특산식물로는 키버들과 햇사초가 포함된다.

I. 서 론

지구 생명현상의 기본요소인 물은 지구표면의 71%를 덮고 있으며, 하천과 호수 그리고 습지를 이룬다. 습지는 불투수성 내지는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생성된 지역으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갖추고 다양한 생명체를 키우는 완벽한 하나의 생태계이다. 이러한 보전적 가치가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람사르협약을 통하여 습지를 보호하고 있으며 국내의 등록된 람사르습지는 22곳에 이른다.

수생식물과 습지식물은 그 경계가 모호하여 하나의 “계”의 구성원으로 함께 그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면과 습지의 면적은 자연적인 천이과정, 직접적이고 인위적인 개발 그리고 그에 따른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수생습지식물은 중요한 생명자원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CBD, GSPC, ABS 등 국제협약의 시행으로 생물주권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야생종에 대한 생물다양성 확보는 필수적이다.